

2015년도 무용창작산실 우수작품제작지원 심사평

<무용창작산실 우수작품 제작지원작>

2015년 무용 창작산실 우수작품 제작지원 사업은 대극장 3일, 소극장 3일 총 6일 간에 실연심사를 통해 대극장 5작품, 소극장 4작품을 선정하였다. 심사위원들은 (1)작품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2)공연작품의 예술성 (3)공연단체의 역량을 심의기준으로 하여, 모든 시범공연을 관람 후 최종 심의를 진행하였다.

대극장부문은 지원 단체의 작품기획의도와 단체의 기량, 선정 후 작품 완성가능성의 일치 여부를 검토하였다. 작품 전반적으로 독특한 오브제의 활용과 장르 불문하고 한국음악을 사용한 점 그리고 연극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작품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융·복합적 경향을 띤 작품들이 많았다. 심사는 실연을 바탕으로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 작품이 의도하는 완성도에 이를 수 있을 것인지를 고려하였으며, 이를 위해 안무자들의 심도 있는 인터뷰를 각각 진행하였다.

소극장부문은 상대적으로 신진 안무가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는데, 이에 따라 소극장 공연의 특성과 신진 안무자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였다. 특히,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주제 의식과 안무 방법론, 문화적 주체성과 미학적 정체성, 새로운 무대 인터랙션과 시노그래피(공연 디자인)의 구현, 공연 기획과 안무 의도에 따른 작품의 구현 가능성, 안무가로서의 예술적 역량과 발전 가능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였다.

올 해 지원한 작품들의 전반적인 경향은 안무자들의 우수한 기량과 발전 가능성, 참신한 아이디어와 실험적인 시도, 탄탄한 작품 구성과 안정된 테크닉, 새로운 시각적 효과의 구현을 볼 수 있었다.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발전 가능성이 높은 다른 작품들을 지원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무용 창작산실 지원사업에 지원하여 심의에 성실하게 참여한 안무가들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선정된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작품을 발전시켜 연말에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공연되기를 바란다.

2015 무용창작산실 우수작품제작지원 심의위원 일동